

- 주요 뉴스: 미국 2/4분기 GDP(확정치) 성장률, 약 2년래 최고,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약화
 - 연준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 마이런 이사는 큰 폭의 추가 인하 주장
 - 미국 트럼프, 연방정부 폐쇄 시 대규모 해고 지시. 무역협약에 따른 투자는 선불
 - 일본은행 7월 통화정책회의 요지, 물가상승 등으로 금리인상 지지 의견 다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주요 경제 지표,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하 전망 후퇴, 고평가 논란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무역정책 영향에 따른 의료 관련주 우려 등으로 0.7%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2/4분기 GDP 및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6%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일부 연준 인사의 금리인하 신중한 입장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3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07.1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09.1원, 0.60% 상승). 한국 CDS 상승

	9/25일	9/24일	전일대비		9/25일	9/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604.7	6,638.0	-0.50%	국채 금리 10y	미국	4.17%	4.15%	+2bp
	유럽	550.22	553.88	-0.66%		독일	2.77%	2.75%	+3bp
	중국	3,853.3	3,853.6	-0.01%		영국	4.76%	4.67%	+9bp
	일본	45,755	45,630	+0.27%	CDS 5y	한국	25bp	23bp	+2bp
	한국	3,471.1	3,472.1	-0.03%		중국	38bp	36bp	+2bp
환율	달러지수	98.48	97.87	+0.62%	위험 지표	EMBI+	-	338	-
	유로화	1.1666	1.1738	-0.61%		VIX	16.74	16.18	+3.46%
	엔화	149.80	148.90	-0.60%	WTI유	64.98	64.99	-0.02%	
	위안화	7.1339	7.1319	-0.03%	원자재	구리	470.0	475.3	-1.10%
	원화	1,400.6	1,397.5	-0.22%		금	3,749.4	3,736.2	+0.3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4분기 GDP(확정치) 성장률, 약 2년래 최고.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약화

- 2/4분기 GDP 성장률(확정치, 전기비연율)은 3.8%로 수정치(3.3%) 대비 상향 조정되며 '23년 3/4분기 이후 최고치 기록. 이번 결과는 양호한 소비지출 및 기업 투자에 기인하며, 기업 투자의 경우 특히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 또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감소 역시 GDP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이번 결과는 일부에서 우려했던, 관세 충격에 따른 심각한 경기 둔화가 적어도 단기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 다만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년 GDP 성장률이 작년(2.8%)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추정
- 한편, 9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21.8만건으로 전주(23.2만건) 대비 큰 폭 감소하며 7월 중순 이후 최저 기록. 이는 노동시장 냉각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의미. 8월 기존주택판매는 전월비 소폭 감소(401만건→400만건, 연환산). 다만 전문가들은 재고 부족과 높은 대출금리 등의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어 기존주택판매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NAR)
- GDP 및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시장에서는 경제가 일부 어려움에도 양호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ETrade). 이에 향후 금리인하 속도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CME의 FedWatch에 따르면, 금년 10월 및 12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소폭 하락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 마이런 이사는 큰 폭의 추가 인하 주장

- 캔자스시티 연은의 슈미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중요하기에 단기간 내에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또한 연준의 보유 자산은 가능한 줄여야 한다고 첨언.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에 근접하기 전까지 추가 인하에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그러나 親트럼프 성향의 마이런 이사는 근거가 부족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고금리가 지속되고, 관련 영향으로 경제가 충격에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 이에 연방기금금리를 2.0%p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 트럼프, 연방정부 폐쇄 시 대규모 해고 지시. 무역합의에 따른 투자는 선불

-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현실화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시. 이는 민주당을 압박하여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 한편, 관세 및 무역합의 덕분에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언급.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 對美 투자는 선불이라고 강조

■ 유로존 8월 은행대출, 전월비 증가세 강화. 독일 10월 GfK 소비자신뢰는 상승

- 유로존 8월 은행대출 증가율은 기업 및 가계부문 모두에서 전월비 상승(각각 2.8%→3.0%, 2.4%→2.5%). 이번 결과는 ECB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영향에 기인
- 한편, 독일 10월 GfK 소비자신뢰지수는 -22.3을 기록, 전월(-23.5) 대비 소폭 상승. 이는 가계소득 전망 개선에 따른 결과로 추정. 다만 시장에서는 고용 불안,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0%로 동결. 마이너스 금리는 회피

-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로 결정하여 `23년 3월 이후 이어진 인하 사이클 중단. 슈레겔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 변화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 만일 금리를 인하한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

■ 중국 인민은행, 홍콩에서의 위안화 채권 거래를 위한 지원 강화할 방침

- 인민은행은 홍콩에서의 위안화 채권 거래를 확대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 쉰우란 부총재는 이를 위해 해외기관에 의한 레포 거래를 지원하고, 스왑통(互換通) 참여 기관의 수도 확대하겠다고 발언

■ 일본은행 7월 통화정책회의 요지, 물가상승 등으로 금리인상 지지 의견 다수

- 다수의 위원들은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금리인상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 특히 경제 측면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26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PCE 물가, 개인소득 및 지출,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 연준 보우먼 이사 발언, 일본 9월 도쿄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금리인하, 대출 및 저축예금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제한적 - WSJ

(Why Lower Fed Rates Won't Instantly Lower Your Borrowing Costs)

- 연준은 9월 첫 금리를 인하했고 추가 인하도 시사. 하지만, 이에 따른 효과를 실제로 체험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소지. 일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연준이 결정하는 단기 금리와 별개로 경제 전망 영향을 받는 장기 국채금리가 좌우. 장기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불구 경기 호조 혹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이 가능
-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경우 이자 납부 시 0.25%p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가 매우 제한적(TransUnion). 자동차 대출금리는 기간·금액·연체율 등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 다만, 예금 금리는 은행 간 유치 경쟁 심화로 점진적이고 더디게 내려갈 소지(Moody's)

■ 미국 트럼프發 인플레이션, 관세보다 서비스 부문에서 심화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Trump's biggest inflation worry might not come from his tariffs on goods)

- 트럼프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 관련 다양한 의견이 존재. 특히 수입품 가격의 경우 1년 전 대비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여 관세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불분명.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한 서비스 부문 가격 상승은 전체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향후 인플레이션도 자극할 것으로 추정
- 첫째, AI 붐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 감소 등에 기인한 전기요금 상승. 둘째, 오바마케어 축소, 기후변화 무시 등으로 의료 및 주택 보험료 급등. 셋째,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폐지로 고등교육 비용 증가. 넷째, 수입 자재비용 확대, 이민자 추방 등에 따른 주택 가격 및 주거비 상승 우려

■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에 적합. 예금 사용은 제한될 필요 - 블룸버그

(Stablecoins Should Be for Moving Money, Not Saving It)

-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 신속한 국경 간 거래 등의 장점 보유. 이러한 가운데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수준의 동일한 혜택 제공할 필요. 이는 공정한 경쟁 유도 등으로 소비자 및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
-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예금에 이자가 제공될 경우 은행 예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 이는 심각한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영국의 재정 건전성 위기, 정치적 해결책 미비로 심화될 소지 - The Economist**
 (Britain is slowly going bust)

 - 일부에서는 영국 경제가 G7국가 대비 높은 '2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견조한 소매판매 등으로 양호하다고 평가. 그러나 인플레이션, 대규모 재정적자 등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 심화. 특히, GDP 대비 순공공부채는 '05년에 35%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95%까지 증가
 - 한편, 재정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 축소 규모는 GDP의 2% 수준이며, 이중 일부는 이미 예산에 반영. 이에 재정부채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 그러나 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금 및 복지예산 논의는 정치적 반발 등으로 난관에 봉착. 또한 과도한 세금부과 시도 등의 반시장 정책 등은 투자자의 불안감을 조성할 소지

- **미국 소비자심리, 구매력 감소 등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와의 괴리 심화 - 블룸버그**
 (Millions of Americans Are Becoming Economically Invisible)

- **글로벌 투자자의 미국 자산 선호, AI와 금리인하 등으로 재개될 가능성 - Reuters**
 (Global investors, blindsided by stunning US comeback, jump back in)

- **아시아 신흥국, 달러화 약세 여파로 달러화 자산에 대한 헤지 증가할 전망 - 블룸버그**
 (Weakening Dollar May Lead to More Demand for Hedges in EM Asia)

- **유럽 통화정책, 제한적 美 관세 여파 등으로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은 희박 - 블룸버그**
 (Europe's Negative Rate Experiment Won't Be Restarted Y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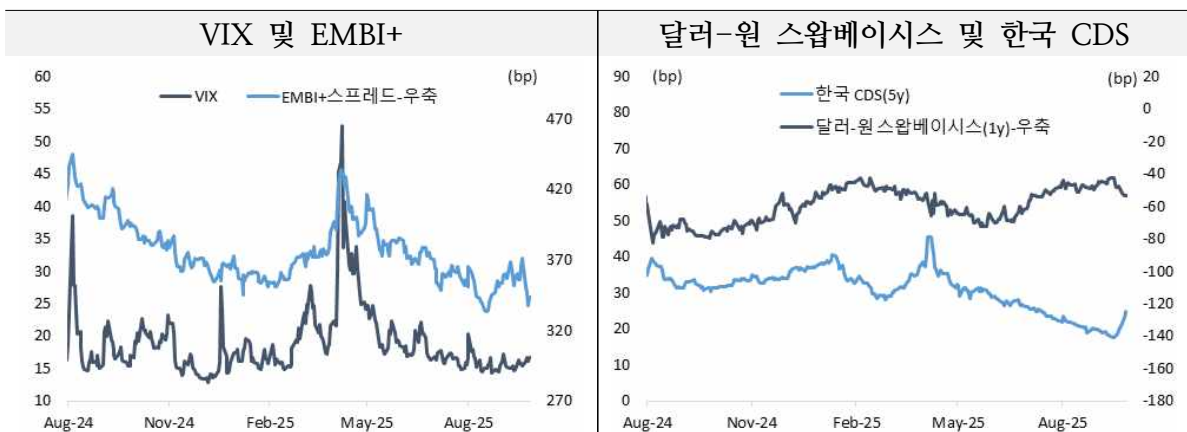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